

## EU, 동물사료용 GM옥수수 수입 허용

지난 8월 8일 EU 집행위원회는 유전자변형(GM) 옥수수 MON863을 동물사료용으로 수입하고 가공하는 것을 승인했다. MON863은 2001년 ‘유럽 연합 지침 18호(Directive 2001/18/EC)’가 발효된 이후 평가되고 승인된 두 번째 GMO이다. 이번 결정에 GM옥수수를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몬산토(Monsanto) 사가 개발한 이 GM옥수수는 옥수수 뿌리에 해를 끼치는 해충들에 대해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M옥수수 MON863의 수입 및 가공을 허용하면서, EU 집행위원회는 GMO 유통을 통제하는 법규를 적용하게 된다. 이 법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GMO 규제 법규로 알려져 있다. MON863 옥수수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엄격한 사전 리스크 평가를 받았으며, 유럽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이 일반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관련 법규(Regulation EC No 1829/2003, GM 식품 및 사료에 관한 EU 규정)에 따라 이 옥수수의 이력 추적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4년간 EU는 유전자변형 식품, 사료, 작물에 관한 투명하고 엄격한 규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사람이나 동물이 소비하거나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안전한 GMO만이 유럽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GMO 표시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농민, 소비자, 기타 사용자들이 GMO 상품 구매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몬산토 사는 옥수수 뿌리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는 GM옥수수(MON863 계통)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평가권한을 갖고 있는 독일의 한 당국에 심사를 신청했다. 이때 심사 요청의 내용은 식용 또는 재배용이 아닌 수입, 가공, 동물사료용으로서의 시장 진입과 관련된 내용이 었다.

독일의 관련 당국은 요청된 용도로 MON863을 사용할 경우 인체나 환경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EU 회원국들이 분자 특성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독성, 부적절한 모니터링 계획, 우연한 노출 사고,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함유, 추적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승인을 반대했다. 유럽 식품안전청이 이 문제에 대해 자문 요청을 받고 개입하여 2004년 4월 16일에 MON863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만큼 안전하며 부작용을 낳을 개연성이 없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결국, 2004년 9월 20일 EU 규제 위원회에서 이 옥수수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이 나게 되었다. 그런데 2004년 9월 17일에 독일의 심사 당국이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 원래의 적용 실험에 포함되어 있었던 실험용 쥐에 대한 MON863의 사료 급여 결과 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

많은 회원국들이 규제위원회에서 그러한 재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공식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규제위원회는 2004년 11월 29일에 다시 열렸다. 이때에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에 몬산토사의 최초 제안서를 제출했다. 2005년 6월 24일 회의에서 유럽연합 환경 이사회(Environment Council)는 제안서에 대한 통일된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EU의 법규에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최근의 평가 결과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자료: 유럽연합, RAPID  
(김정섭 jskkjs@empal.com 010-7339-2546 서울대학교)